종단소식

조계종

고산스님 계사로 포살법회

증앙종무기관 교역직종무원 및 직할교구주지 등 1백여명이 참석한 8월 포살법회가 고산스님(호계원장)을 계사로 25일 조계사 대웅전서 봉행됐다.

은해사 보살계 수계법회

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10일부터 11일까지 대웅전에서 전계대화상 일타스님을 계사로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봉선사 불교교양 특강

남양주 봉선사(주지 밀운)는 4일 제1기 불교특강을 개설한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칭풍루에서 마련되는 이번 불교특강은 예절, 법구의 이해, 재가의 제사, 공(空)사상 등이 12월말까지 진행된다. 이에 앞서 봉선사는 2일 불교교양대학 15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태고종

영산재 국재 봉행위 구성

총무원(원장 인곡)은 8월27일 총무원에서 종무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10월21일 국재(國齋)로 치르기로 한 영산대법회 봉행위원회를 구성했다.

봉행위원장에는 인곡 총무원장 스님이, 고문에는 보성 종정스님과 덕암 선암사 방장스님이 맡기로 했으며 총무, 재무 등 10여개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장을 선임했다.

영동·영평정 분원장 선출

강원교구종무원(원장 편백운) 영동분원과 영평정분원은 8월21일 분원산하 사찰주지회의를 열고 경혜문스님(동해 동화사 주지)과 박운정스님(영월 계룡사 주지)을 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천태종

삼태사 1053불 봉불식

강원도 영월 삼태사(주지 월도)는 4일 1053불 봉불 및 법당낙성식을 봉행한다.

이번 봉불 및 법당 낙성식은 70여평의 대웅전을 새로 건립, 이곳에 신도들이 숙원사업으로 펼쳐왔던 1053불 봉안을 끝마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용 종정스님을 비롯해 종단 간부 및 사부대중 4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광사 차문화 가을강좌

삼광사(주지 덕수)는 2일 법화당 4층 다심월에서 차문화연구보존회 가을학기 개강식을 가졌다.

매년 5월 개강해 1년간 강의가 진행되는 차문화 연구보존회는 다례기초, 다례복식, 불교문화, 전통문화예절, 도자기 실습 등의 강좌가 개설돼 있으며, 다도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51)808-7111

진각종

대장경 전산화 후원금 전달

성초 통리원장은 8월 22일 통리원장실에서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종림스님에게 '팔만대장경에 새생명을, 21세기 팔만대장경을 만듭시다'운동 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성초 통리원장은 "뛰어난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운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팔만대장경의 새로운 탄생은 한국불교의 위상을 세계에 떨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불교

혜성스님 다비식 엄수

8월19일 입적한 前 종정 혜성스님 영결식 및 다비식이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23일 경남 통영시 안정사에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서는 구암 종정스님의 법어와 대호 총무원장스님의 조사가 이어졌으며, 영결식이 끝난 후 안정사 다비장에서 다비식이 치러졌다.

알림 본지 20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올 4천8백명 단기출가

연령 젊어지고 지식층 참여 늘어

83% 신참…타교·무교인도 20%

31일 불국사를 끝으로 마무리된 올 여름수련회는 전국 8개 사찰에서 진행됐으며, 4천8백여명의 불자 및 일반인들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일반인이 3천여명, 중·고등학생이 5백60여명, 어린이가 1천2백여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참자를 위주로 모집했기 때문에 4천여명의 인원이 사찰 수련회를 처음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종인이나 무종교들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어 사찰별로 각 차수당 10~20%에 이른다.

이같이 사찰 여름 수련대회가 인기를 모음에 따라 대부분의 사찰이 평균 2.5:1에 이르는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송광사의 경우 지난 해보다 1차례 더 늘려 8차에 걸쳐 실시했으나 2천여명을 사전 탈락시켰다. 해인사와 통도사 불국사도 사정이 다르지 않아 횟수를 늘려 달라는 전화가 잇따랐다.

그러나 각 사찰들은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만한 전용수련장이 없거나 부족해 참가인원과 횟수를 더이상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둔사 법인스님(교무국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참가자의 연령이 젊어지고, 전문직을 갖고 있는 지식층이 많이 참여했다"고 말해 사찰수련회가 대중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태 등으로 인해 빡빡한 수련일정과 강도높은 정진을 못견뎌 중도탈락하거나 힘겨움을 토로하는 참가자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필선 기자〉

"정방사 태고종 소유"

백양사 부지반환소 패소

전남 백양사(주지 지선)가 지난해 3월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태고종 소속 사찰 정방사(주지 현인범)를 상대로 제기한 사찰 부지 반환청구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합의부(재판장 김옥신 부장판사)는 1년 4개월의 심리끝에 지난 7월24일 백양사가 제기한 '정방사 사찰부지인 서귀포시 서귀동 236번지 5백73평 소유권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피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美 국방성내 명상모임이 23년간 수행활동을 해오고있다.

美 국방성도 명상수련

'평화클럽' 23년째 활동…긴장된 마음 다스려

미국 국방성 내에 지난 23년간 명상을 하는 대중들의 모임인 명상모임 '평화방패클럽'(Peace Shield Club)이 꾸준한 활동을 펴오고 있다.

미국의 불교시사잡지 〈트리사이클〉지(여름호)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 국방성 수행관에서 개최되는 명상모임에는 정회원 50여명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장성과 제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국방성은 매년 2백여조원을 지출하며 2만5천여명이 상근하고 있는 미국 군부(軍部)의 핵심.

명상모임 회장 바트 이브스(군사전략전문가.47)는 "이 곳은 폭발하기 직전의 분화구와 같은 긴장감이 도는 전쟁터"라며 "이곳에서 일하는 우리의 마음도 항상 위기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것은 다스릴 방편은 명상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12년동안 수행관에서 관법 등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이브스는 "금요 모임에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참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명상을 함으로써 긴장과 위기감을 다스리고 평화를 얻는다고 토로한다"고 말했다.

명상모임은 1976년 방위사령부 前재정분석가인 윈체스터(60)가 만든 불교동호회. 당시 교도서 등에서 '평화방패' 캠페인을 전개했던 그는 '나로파 연구소'(美, 콜로라도주)의 조양 트렁파 린포체와의 만남을 계기로 명상모임을 만들었다.

日조동종 北에 식량지원

쌀 국수 등 1차분 130t

일본 조동종 국제자원봉사자회(회장 松永然道) 북한식량지원단이 8일부터 지원물자를 선적하고 있는 가운데 그 첫편이 11일 신세키항(新潟港)을 출발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식량은 중국과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구입한 쌀, 통조림, 국수 등 총1백30톤의 물량이다.

국제자원봉사자회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금운동과 함께 식량지원을 전개할 것"이라며 "북한 원산항을 통해 들어간 식량은 WFP와 공동으로 배급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부산방송 노조 결성

불교부산방송(지사장 류진수)에 노동조합이 창립됐다. 위원장에 최상만씨(운행부 사원), 불교부산방송 노조는 8월26일 조합원 11명중 7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갖고 운영위원회를 결성했다. 노조는 서울 불교방송 노조와 긴밀한 관계 하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모사

갑작스런 이별 화두가 되고…

휴암(休庵)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보니 그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아쉬움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출가 30년,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대하는 품이 넉넉해지고 행동거지가 시원시원하더니 최근에는 청소년처럼 씩씩한 기상까지 보이더이다. 원래가 꾸밀 줄 모르는 성품에 질박한지라 근래 그의 모습은 무애도인(無碍道人)의 풍모를 연상시켰습니다. 그는 참으로 선승이었습니다. 스님다운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가장 파격적인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내 문중이란 의식도 없었고, 정한 스승도 상좌도 없었습니다. 승가의 도반이 반이라면 속가의 법려(法侶) 또한 반이었습니다.

그는 승(僧)에도 속(俗)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계율을 존중하되 계율에 집착하지 않았고, 부처를 따르되 심법(心法)을 따랐지 습법(習法)을 추종하지 않았으며, 어떤 종교, 어떤 이념이든지 교조화되는 순간 이미 어긋난 것이라고 설파하곤 했습니다.

불교개혁도 제도보다 정신의 개혁을 중시했습니다. 모든 집안을 자기 문중으로 알았고 모든 큰스님을 스승으로 받들었으며, 모든 젊은 이를 제자로 여겼습니다.그러나 사물과 사태에 직면해서는 사(私)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공과 불교를 위한 비판에는 서슴이 없었습니다.

그는 야인인 동시에 귀인이었습니다. 고매한 정신의 드문 귀족인 동시에 참으로 꾸밈없고 자유로운 들녘의 자연아였습니다. 이제 그는 갔습니다. 뜻하지 않은 화두를 남기고 갔습니다. 오고 감이 둘이 아니듯이, 명(命)과 비명(非命)이 둘이 아님을 보이려 함입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이 희한한 이별은 우리에게 풀 수 없는 영원한 화두입니다. 여름 어느날 기기암(寄寄庵)의 주련(柱聯)을 함께 읽었습니다. '해저니우함월주(海底泥牛含月走)', 이것이 그 이별을 예언이라도 한 것입니까? 아, 사랑하는 벗님!

옛벗 김규칠(산업기술정보원장)

기기암 휴암스님 입적

기기암 선원장 휴암스님(조계종 기초선원운영위원)이 8월23일 낮 12시10분 화천 파로호에서 목욕중 입적, 법구 수습작업중에 있다.

이날 기초선원운영위원회의를 마치고 위원스님 3명과 함께 은사 혜원스님(해원사)을 친견하고 난 후 이같은 불상사가 발생 불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스님은 41년 마산에서 출생, 69년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그해 갑사로 출가, 평생을 선원에서 정진해왔다. 저서로 〈한국불교의 새얼굴〉〈장군죽비〉 등을 남겼다.

스님의 영결다비식을 준비하고 있는 기초선원운영위원회는 기기암에 빈소를 마련 분향을 받고 있으며, 8월 29일 초재를 지냈다.

강릉 초 종교 봉사연합체 탄생

강릉복지관 등 30개 단체…회장 정복현불자

강원도 강릉시에 최초로 자원봉사협의체가 창립될 전망이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 YMCA 등을 비롯 30여 복지시설이 참여하고 있는강릉시 자원봉사협의회(준비위원장 정복현·강릉종합사회복지관장)는 최근 준비위원회의를 갖고 회장에 정복현 강릉종합사회복지관장을 선출했다.

강릉시 자원봉사협의회는 "각 분야별로 추진돼 온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전문화하여 정보공유를 통한 봉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음 해결사를 믿어라

자신의 진짜해결사를 찾아라. 오로지 자신의 해결사를 믿고 모든것을 거기에 맡겨라. 안된다는 생각, 안되는 사정을 붙들고 늘어지게 아니라 해결사에 놓아버려라. 해결사의 능력을 믿어라. 믿음이 강하면 보고가 열린다.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약(藥)이 되는 신비한 식물— 백화사설초

암을 퇴치하고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입증된

기적의 한국산 약초

신비의 약초 백화사설초 「암」치료에 탁월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가 간암·직장암·식도암·방광암·자궁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었던 바 불심짙은 우바이가 백화사설초의 효능을 몸소 체험한 후 재배를 확대,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신농산 대표 김나진자 보살은 C형간염·황달·당뇨 등이 겹쳐 사경을 헤매며 각종 양방과 한방을 썼지만 치료가 안돼 소문을 통해 들던 백화사설초를 구입, 달여 복용한 결과 병이 치료되어 본인이 직접 이 약초를 재배하기에 이르렀으며 보급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백화사설초는 중국이 원산지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백운산에서 자생되는 것을 처음 발견 「백운풀」이라고도 부른다.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일년생 식물로 30㎝정도의 키에 연약한 대궁이 뱀의 혓바닥(蛇舌)처럼 생긴 잎에 흰꽃(白花)이 핀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백화사설초는 그 풀 전부를 약용으로 하며 암 이외에도 각종 염증이나 종기, 타박상에 특효 약초로 쓰인다.

또한 청열해독제(清熱解毒制)로도 이용되며 체내의 응어리를 풀어 독을 해소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불자 운영하는 「영신농산」서 보급

각종 염증·종기·타박상에도 효과

경남생약연구소의 성환길소장(약학박사)은 『백화사설초는 옛날부터 전해온 민간약으로 청열·종기·기관지염 등 각종 염증과 항암제로서 탁월한 효과가 있어 현대 천연약물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며 『백화사설초의 엑기스가 동물실험에서 악성종양세포에 강한 억제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대학 학장 이광전 박사는 "간암으로 홍콩의 권위있는 어느 병원에서조차 치료약이 없다고하여, 백화사설초를 매일 150g씩 전탕해서 복용하니까 3개월만에 완치되었다"고 한다.

(녹차와 약차(동화문화사 刊, 신재용 생활길서 중에서)

각종 문헌에 나타난 백화사설초의 효능

◆ 항암본초(상민의 편저, 김수철 역주)-위암, 식도암, 직장암, 자궁암, 기타암증
◆ 묘약기방(조규형 저, 범진문화사 刊)-간염, 장염, 요초감염, 랭장염, 편도선염, 인후염, 각종 종기, 타박상, 위암, 직장암, 간암, 자궁경암, 방광암
◆ 한방의학 대사전(진존인 저)-간암, 위암, 식도암, 간염, 위염, 식도염, 편도선염, 직장염

1997년 7월 16일자 대한불교신문기사 발췌

추천의 말	"백화사설초는 한의약의 대표적 항암생약이다." 한국자연생약보호협회장 이학박사 한영재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신비한 약용식물인 백화사설초" 경남생약연구소장 약학박사 성환길
백화사설초 주제발표	일시 : 1996년 10월 31일 23시 30분 KBS 국제건강가족동우회 박영호 실장(박사)

영신농산총판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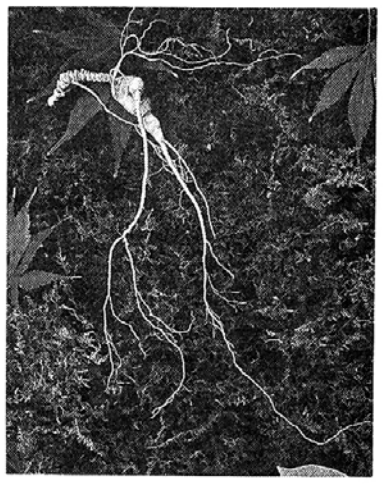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384-10

☎ 051) 465-5100,467-5200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약용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아래에 불과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중 장뇌란 삼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옴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삼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연구협의회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